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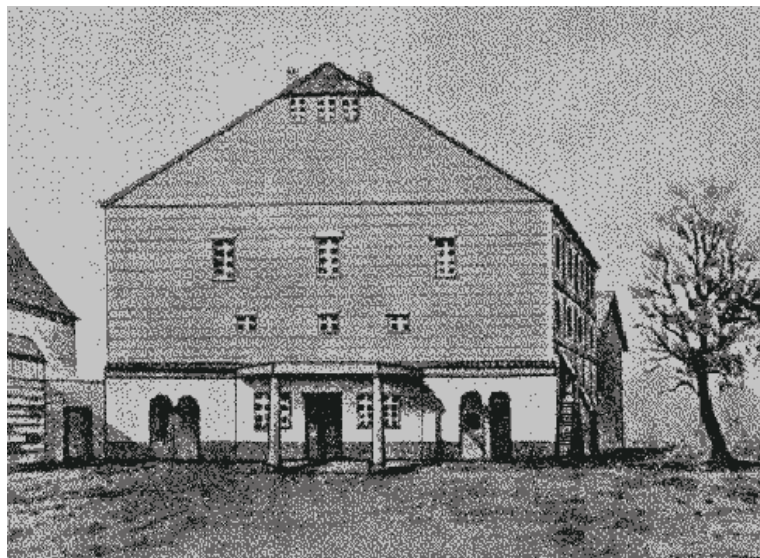
Gotthold Ephraim Lessing

고트홀트 에프라ם 레싱

1729-1781

생애

- 1729년 1월 22일 카멘츠 출생
- 신학자이자 수석목사의 아들로 성장
-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신학, 비텐베르크에서 의학 학위수여
- 베를린 등에서 서평편집자로 활동시작, 연극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행, 출판인으로서 활동
- 당대의 문학 및 시대논쟁에 적극 투쟁하는 논쟁가이자 평론가
- Moses Mendelssohn과 우정을 통해 반유대주의에 대해 저항
- 다수의 연극 및 연극평론 그리고 예술론 등을 출간
- 함부르크의 시민극장의 초대고문으로 1년을 지내다가 극장의 실패로 인해, 볼펜뷔텔의 도서관의 가난한 사서직으로 말년을 맞았으나 십년의 이 기간동안 최고의 연구업적을 남김



1

3

2

1. Lessings Geburtshaus

2. Das Hamburger
Nationalthea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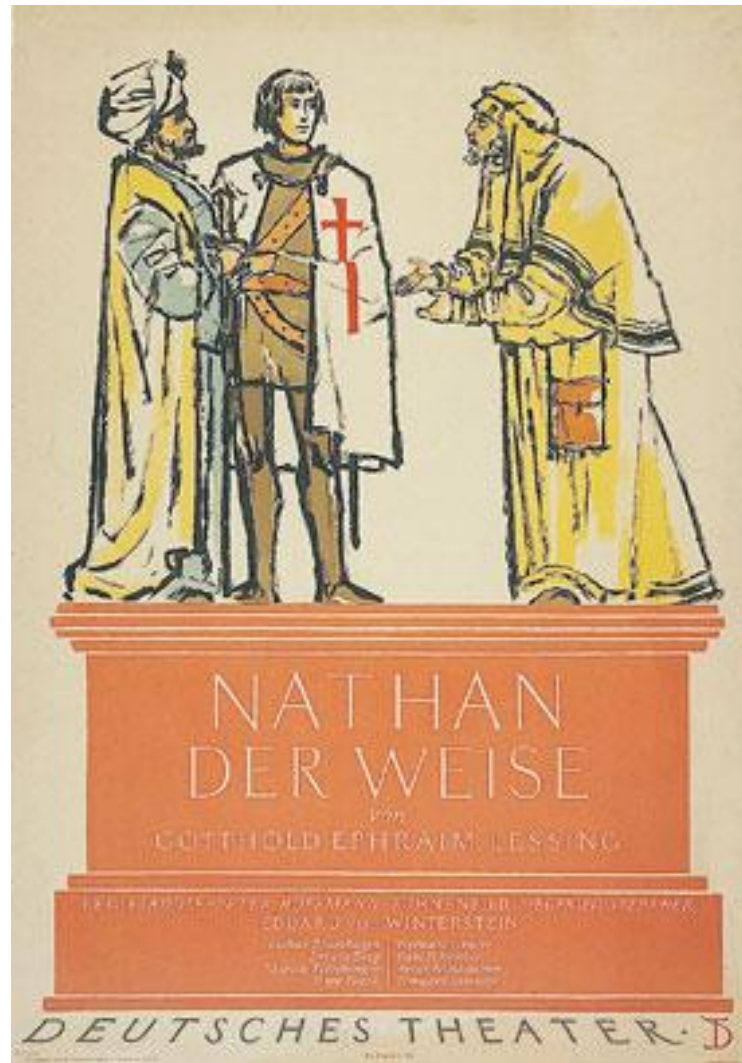
3. Lessings Grab

영향

- 프랑스 의고전주의에 맞서 셰익스피어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올바른 해석을 기초함
- 독일시민비극의 창시자이자 근대연극의 기틀을 세움
- ‘시는 미술처럼’이란 아리스토텔레스와 호라츠의 시학의 의미를 구분, 조형예술의 순간성과 시예술의 시간성을 설명(라오콘)
- 종교적 관용(Toleranz)을 주장하며 반유대주의 및 범세계 시민상을 기초
- 계몽과 박애정신에 기초한 보편적 형제애와 도덕적 자유의 주장

주요 작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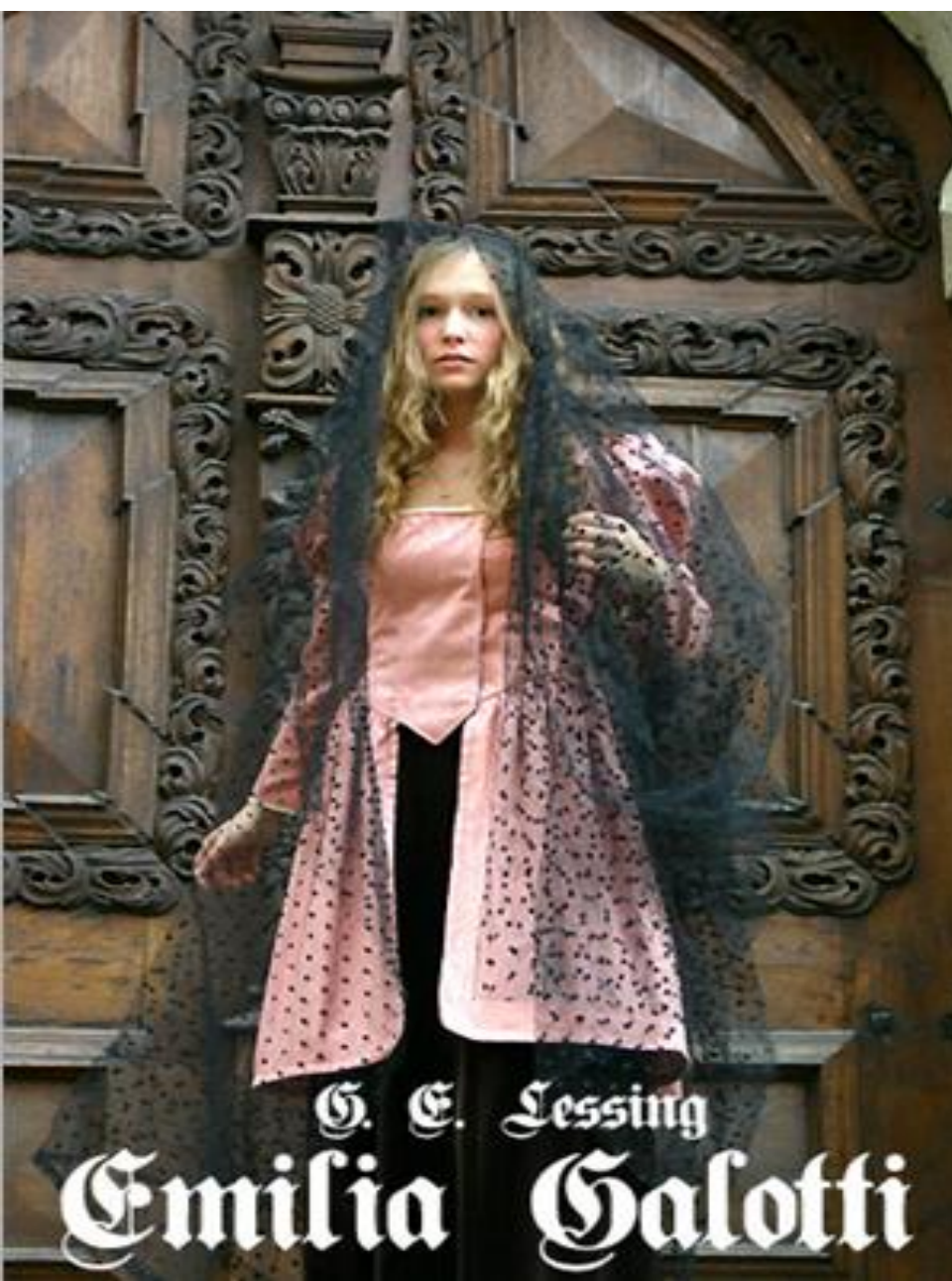
- 유대인(1748년)-게토의 유대인에게 사회적 관용의 정신을 찬양
- Miss Sara Sampson(1755)-최초의 시민비극
- Emilia Galotti(1772)
- Nathan der Weise(1779)
- Minna von Barnhelm (1767)
- 문학 및 미학 서신들(1759-65)
- Laokoon(1766)
- Hamburgische Dramaturgie(1767-69)
- 인류의 교육(1780)



Nathan der Weise

Nathan der Weise (1779)

- 제 3차 십자군 전쟁시기
- 현명한 유대인 현자의 이야기로서 유대교, 이슬람, 기독교의 평화로운 종교적 관용을 설파
- 나치에 의해 금서가 됨
- 유대인 나탄, 이슬람살라딘 왕, 기독교신전기사
- 종교적 관용과 평등을 계몽적으로 제시
- 반지의 비유라는 우화가 드라마 속에 삽입됨. 우화는 계몽주의자들의 설득적 형식임



Emilia Galotti(1772)

-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군웅할거시대 배경
- 시민계급 Odoardo, Claudia Galotti의 딸 Emilia
- 에밀리아는 Apiani백작과 약혼상태, 구아스탈라의 영주 Gonzaga와 그의 시종장 Martini는 간계를 내어 도적으로 아피아니를 살해 후 에밀리아와 어머니를 납치.
- 곤차가 영주의 약혼녀 오르시나 백작부인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에밀리아의 부친 오도아르도에게 누설
- 자살을 시도하지 못한 딸을 아버지가 죽임
- 곤차가는 모든 책임을 마리넬리에게 전가하고 시종장은 그를 떠남

- 에밀리아: 순결도 하나뿐입니다.
- 오도라르도: 순결은 어떤 폭력도 범접하지 못한다.
- 에밀리아: 하지만 모든 유혹에 초연한 건 아니죠. 폭력! 누군들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겠습니까? 폭력이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. 유혹이야말로 진짜 폭력입니다. 제 몸에도 피가 흘러요. 아버님.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젊고 뜨거운 피가요. 저도 관능이 있습니다. 저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
- '폭풍우가 꽃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장미꽃을 꺾으신 겁니다.'

- 절대 군주와 시민 가족
- 간계와 명예롭지 못한 권력남용
- 도덕적 명예와 죽음
- 이탈리아 군주시대로 시간과 장소의 변용
- 오도아르도의 도덕지상주의
- 에밀리아의 스스로의 자기결정성 부족
- 절대군주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
- 시민계급의 자발성 없는 강제적 도덕률 역시 비판

Danke für deine Aufmerksamkeit!